참관기

「데이터베이스 '94 동경 쇼」

균형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Balanced Database Industry of Japan - A View on 「Database '94 Tokyo」

이 창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개발지원과장

Lee, Chang-Han./Database Promotion Center of Korea
Development & Supporting Section, Manager

1. 개요

지난 9월 7일부터 3일간 열린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주관으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48개 기관의 전문가 120여명을 모집하여 참관하였다.

동경의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은 재단법인 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 일본데이터베이스협회(DINA) 및 일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상산업성, 문부성, 우정성 및 과학기술청 등 일본 정부부처, 미국정보산업연합회(IIA,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유럽정보산업협회(EIIA, Eu-ro-pea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중국데이터베이스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및 일본데이터베이스 유관기관 등 일본 국내외 26개 기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은 일본의 최대 데이터베이스 종합 전시회로서 정착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시규모는 89 기관, 203 부스로 과거 어느때보다 최대이며 질적인면에서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쇼로서 손색이 없었다.

재단법인 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가 발행하는 "데이터베이스백서 1994"의 권두언에서 "현재의 장기불황은,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것이며, 물질 중심으로부터 정보·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이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듯이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의 규모 확대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2 출품 내용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에 출품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제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구축시스템 등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 CD-ROM 관련 기술의 실용화에 따른 양자의 결합으로 대부분의 출품 내용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서 뿐만 아니라 CD-ROM 데이터베이스로도 선보이고 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으로서 특히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제작 시스템을 특별 구역내에 집중적으로 출품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의 활성화 배경에는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중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성공예로서 "리엔지니어링"이 주목받고 있으며, 리엔지어링의 불가결한 요소가 최신정보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시스템, 신일본제철社, 일경정보시스템社, 테크널러지자팬판매社 및 일본유니소프트社 등의 전문검색소프트웨어, 삼정동압화학의 CD-ROM오더링시스템, 일본유니시스社의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소프트웨어에이지社와 평화정보센터의 DBMS 등이 출품되었다.

두번째 분야에 따른 구분 방법으로서 크게 비지니스와 자연과학기술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산산업성 "데이터베이스대장총람"에 의하면 일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중에서 비지니스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데이터베이스 쇼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지니스 데이터베이스 기관으로서 일본 전국 85개의 조사망을 갖고 있으며, 100만 기업이상의 정보를 축적한 COSMOS를 구축·서비스하는 (주)帝國데이터뱅크, 1892년 창립하여 독자적인 기업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왔으며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자정보, 도산정보, 법인신고소득정보 등을 자체 서비스템인 TSR-VAN을 통하여 제공하는 (주) 동경상공리서치, 일본내 조사기관이 수집한 전국고객납세자정보, 다이어몬드회사 직원 정보, 의사 및 의료시설 정보 및 기업 정보를 수록한 DB-PRO(Database of Prospective Customers)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日商일렉트로닉스(주), 일본경제신문 등 5개 신문을 발행하며 이 신문의 취재망을 통하여 일본내외의 신문기사와 금융·경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는 일본경제신문사, 일본의 무역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일본을 포함한 세계 101 개국의 국별·무역·투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인 제트로·에이스와 일간지 "통상홍보" 의 기사를 국별 혹은 필요항목에 따라 프리텀으로 검색할 수 있는 통상홍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서비스하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주요 50여개국에서 16,000여종의 과학기술 정기간행물을 수집하여 2,700만건이상의 일본 국내외의 과학기술 문헌정보를 수록한 JOIS 파일, 질량스펙트럼, 열물성, DNA 재료강도 등 7종의 과학기술분야의 사실 데이터를 구축한 JOIS-F 파일 등을 구축 서비스하며, 미국의 CAS-Online

및 독일의 FIZ와 국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세계 규모의 종합 과학기술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인 STN-International을 구축한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일본의 특허공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인 PATO-LIS를 운영하며 분야별 특허 공개공보를 CD-ROM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재)일본특허정보기구, 그외에 (재)일본건설정보종합센터, (사)화학정보협회, 케미컬데이터서비스(주) 등 과학기술전문 데이터베이스기관이 참가하였다.

또한 언론·방송의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이번 데이터베이스 쇼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중 NHK방송사의 자회사인 NHK정보네트워크사가 출품한 CD-ROM 데이터베이스로서 NHK가 지난 1945년부터 방송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동화상과 음성을 재현할 수 있으며, 정지화면 상태에서 사진을 직접 출력해 볼 수도 있게 하였다.

(주)일렉트로닉라이브러리는 일본국내의 신문 45개지와 잡지 120여지로부터 기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당사의 서비스 시스템인 EL-NET를 통하여 전일의 조간·석간·잡지 기사 중 미리 정해진 키워드에 의하여 자동 검색되어 FAX로 서비스되는 EL-SDI 및 당일의 조간기사를 서비스하는 EL-MOR 등의 SDI 서비스, 1년 단위의 약 60만건의 기사를 소급 조사할 수 있는 EL-DB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 외에 개인간 통신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비지니스 이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용PC 통신 네트워크로서 아사히네트의 (주)앳슨, PC-VAN의 NEC, NIFTY-Serve의 니프티(주), People의 피플월드(주), 日經WIND의 일본경제신문사 등이 출전하였다.

3. 맺는말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일본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데이터베이스의 각 분야별, 기능별로 균형된 산업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을 통하여 실감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의 CD-ROM화에 있다. 이는 일본의 첨단 뉴미디어 기술과 기존 데이터베이스 산업과의 융합이 적절히 이루어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사 업종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련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두번째는 동종 사업자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의 신문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주) 일렉트로닉라이브러리社 이다. 당사의 EL-NET를 통하여 45개의 일본내 조석간 신문 기사를 SDI 형태로 일본 전국에 서비스하는 것은 한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종사자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망라성과 대량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 생각된다.

세번째는 동 전시회에서 특정 구역을 책정하여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시스템을 특성화시키는 등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본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업체의 관심이다.

국내의 경우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자체의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국내의 상황은 대다수의 전문 데이터베이스 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시스템도 미비한 처지이지만 향후 산업의 정보화라는 측면에서 볼때 기업의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부문에도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네번째는 정보 수집 보유 기관들의 장기간에 걸친 착실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에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의 출전 기관중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일본특허정보기구, 제국데이터뱅크, 조일신문사 등 일본의 분야별 중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관들이 대부분 수십년 동안 자사의 고유 업무를 통하여 수집 관리되어 온 데이터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온 것이다.

이는 일본일들의 국민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현재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 생각되며,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부문의 다원적인 결합(Multidisciplinary Connections)이라는 말을 한다. 기술 부문간, 전문 분야간, 제작 주체자간, 지역간 등 제반 부문의 균형된 결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성숙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데이터베이스 '94 동경" 참관을 통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타국의 힘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데이터베이스는 자국의 언어나 문화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94 동경"을 통하여 이웃 선진국인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상을 보며, 국내에도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가 멀지않은 장래에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DB